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 활동 보도

2013년 07월 15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3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 5분자유 발언 통해 정책 방향 제시

다음은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실시한 5분자유 발언 요지다

**“주민 여론수렴하는 3,000만원 홍보단 설치하는 안된다.” 예산낭비 우려 강력 제기!!!**

구본승 강북구 의원(미래동, 총무동, 반3동)은 7월 8일에 열린 강북구의회 제17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주민 여론수렴이 없는 책정된 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3,000만원 홍보단 설치하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다.

구본승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변경에 대해 “작년 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행정보건의료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다수 구성원들은 전시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3,000만원 홍보단 설치할 반대했었다.

한지민 집행부에서는 예정특위 박비자 회의까지도 홍보단안은 꼭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할 줄까지 있어서 그렇다면 주민여론 수렴 후 그 결과에 따라 찬성이 많을 경우 홍보단을 설치하려는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이어서 “하지만, 지금까지도 집행부는 홍보단 설치 관련해서 주민여론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6월 말경에 발주한 ‘주민여론조사’에 주민여론조사에도 홍보단 설치 관련 여론조사 항목을 넣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경수 강북구청장이 직접 행커서 판단해주시길요 요청드립니다.”며 강북구청을 질타하며 올바른 처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예산안 심의 관련 강북구의회과의 협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만약에 주민여론수렴 없이 홍보단 설치를 강행한다면 민의를 차버린 보여주기식 예산낭비가 분명하다. 박경수 구청장과 현행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문고 활성화위한 용역 실시 해야**

김도연 강북구 의원(비례대표)은 7월 8일에 열린 강북구의회 제17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새마을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발언에 나선 김 의원은 “2011년도 구정결산 시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으로 새마을문고의 운영시스템의 전환을 제시하여 문고운영시스템의 전환을 제시

하며 일관된 문고 운영의 위해 봉사하는 회원들에게 소액의 살비보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고의 운영과 개발을 검토 했다.”며 비록 소액이지만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행 하기 전 최소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고 개폐를 돕고는 매년 자비단체보조금 200만원과 도서구입비에 2,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1도서관 구청을 위해 새마을문고를 전담하고 6개 구립도서관과 상수도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과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독서문화 운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적인 용역을 통한 문고, 각 문고의 도서구입과 운영시스템에 대한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의견 확실히 해야**

이성희 강북구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활성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했다.

이성희 의원은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참여자의 의견에 관한 질의에 나왔다. 지난 6월 22일(토) 자매도시인 김천과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2대 약 70명이 교류차 김천을 갔습니다. 강북구청 측에서는 문화체육과 팀장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는 부시장, 구의원 등 모든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제는 강북구와 김천시 간의 선물교환을 할 때 김천시에서는 부시장이 나왔는데 우리측에서는 격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서 선물교환을 할 것인데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던 차에 본 의원이 나가게 되었다면서 “의전상 팀장이 간 것에 대한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상대방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 적절한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도 지금도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점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

동북일보 4면

## 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

### “원칙있는 매뉴얼과 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성희 의원(새누리당,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이성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참여자의 의견에 관한 질의에 나왔다. 지난 6월 22일(토) 자매도시인 김천과 교류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2대 약 70명이 교류차 김천을 갔습니다. 강북구청 측에서는 문화체육과 팀장이 참석했는데 그곳에서는 부시장, 구의원 등 모든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문제는 강북구와 김천시 간의 선물교환을 할 때 김천시에서는 부시장이 나왔는데 우리측에서는 격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서 선물교환을 할 것인데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던 차에 본 의원이 나가게 되었다면서 “의전상 팀장이 간 것에 대한이

유를 안수가 없고 구 자체에서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또 시, 구의원 합동 참석 시 강북구 행사에 참석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이루어 지는 행사가 시 행사인지 구 행사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원칙을 지키고 매뉴얼 짜서 원칙이 있는 의전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고 강조 했다.

이에 대해 하철승 부구청장은 “이번 김천교류전에서 의견에 결례가 있었다면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방문기간이 이번 의회 회기중이기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좀 결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를 비롯해서 상대방이 있는 행사의 경우에 적절한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앞으로 결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도 지금도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점은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위해서 용역 실시 통한 분석 필요”**

김도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도연 의원은 새마을문고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북구 14개의 문고를 전산화 한 후 각 문고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정한 자원봉사자로서의 문고회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시스템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관된 문고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문고회원들에게 소액의 살비보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문고의 운영과 개발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171회 정례회 중 추경 예산에 동 새마을문고 전담관리자 사비 지급(안)이 상정되어 문고당 2명 6000원씩의 예산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비록 소액이지만 새마을문고를 운영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 전에 우선 최소한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새마을문고에 대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1도서관 구축을 위해 새마을문고를 전산화 하였고 6개 구립도서관과 상호대차기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과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공익근무요원을 문고에 상주 시킴으로써 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구 독서문화운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새마을문고 활성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전문적인 용역을 통하여 각 동별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 필요함이다.

2. 강북구내 전문사서 인력을 활용한 각 문고의 도서구입과 운영시스템

에 대한 스캔을 통해 문고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지속적인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문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동 새마을문고는 인근 학교와 연계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 또는 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이 문고에 봉사하고자 할 경우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주어 연계토록하는 방안입니다. 구청장님의 공익지원인 풀뿌리 도서관이 새마을문고를 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듯 적지않은 예산과 많은 행정력이 투입된 우리의 새마을문고가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냉철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할 때이며 또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보다는 용역을

실시하여 문고의 운영을 분석한 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고를 활성화 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고 주민에게 칭찬받는 새마을문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 실시 즉 전문가의 평가분석 받는 것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 “무상보육위한 재정부담 완화책 마련해야”

구본승 의원(무소속/번3동, 송중동, 미아동)

구본승 의원은 지난해 말,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는 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제 0세~5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오는 9월~10월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예산이 고갈되고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국회와 정부는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하고 낭독했다.



▲ 구본승 의원이 무상보육위한 재정문제에 대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

## 서울포스트 4면

구본승 강북구의원

###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추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지난 7월 8일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7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추진 위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구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로써 서울 25개구 자치구의회 중 처음으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소관 부서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결의안을 전달하였으며 노원구의회, 구로구의회, 관악구의회 등에서 결의안이 발의, 채택되는데 촉발점이 되었다.

구본승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해 말, 지방의회 회기가 끝난 상황에서 지방정부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는 정부의 분담분만 반영한 제 0세~5세 전면 무상보육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가

중시키고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어서 "9월~10월이면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보육료 예산이 고갈되고 7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이 고갈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기에 국회와 정부는 무상보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의안의 촉구 사항은 "첫째, 2013년 무상보육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무상보육 예산 지방분담금의 부족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둘째,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사업비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는 데 뜻을 모으고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개정 전 : 서울 20% 지방 50% ⇒ 개정 후 : 서울 40% 지방 70%)"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본승의원은 "무상보육을 확대 실시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합심하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하였다.